

2011. 2. 21 제257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2. 21 제257호

문화·디자인

1. 지역 주민이 제안한 ‘가치 있는 건축물’ 보존·관리 (영국 셰필드市)

산업·경제

2.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베를린)
3. ‘창조적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도쿄)

건강·복지

4. 모든 장애학생이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통합교육정책 발표 (베를린)
5. 민관 합동으로 ‘음식 나누기 사업’ 추진 (영국 웨일즈)

행정·재정

6. ‘시민 정의 패널’ 확대 구성 (영국 셰필드市)

방재·안전

7.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내진화 촉진대책 수립 (도쿄)

도시환경

8. 건설과 교통을 결합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도입 (독일)
9. 영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 발전소' 건설 (런던)
10.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市)

도시교통

11. 자전거 임대프로그램 확대 시행 (런던)

도시계획 · 주택

12.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뉴욕)
13. 대형 건물 밀집지역의 우수 경관 조성지침 수립 (도쿄)

부록 : 2011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1. 뉴욕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2. 런던 / 보리스 존슨 시장
 3. 파리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4. 도쿄 /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5. 베를린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

문 화 · 디 자 인

1. 지역 주민이 제안한 ‘가치 있는 건축물’ 보존·관리 (영국 셰필드市)

○ 도시 혁신 및 재생으로 유명한 영국 셰필드市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건축미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함. 市는 시민이 제안한 건축물을 도시계획 과정에서 중요하게 심의할 계획임.

- 市 내·외곽에 건축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등록 건축물이 1200여 개 있지만 국가유산 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못함. 市는 방치되어 있는 가치 있는 건물을 시민이 직접 알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향토성을 살리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
 - 건축물뿐 아니라 이정표, 담벼락, 대피소, 다리 등도 등록 가능함. 市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만 가치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을 市 전역에 알리고 각 지역 특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인터넷 홈페이지(www.sheffield.gov.uk/conservation)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할 계획임.
 - 건물 특색: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거나 특별한 건축 스타일을 가졌거나 건축 재료와 건축물 구조가 전시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여부
 - 지역의 역사성: 지역의 특별한 축제나 스포츠, 주요 인사와 관련된 건물인지 여부
 - 주변 환경가치: 지역 특색에 걸맞은 랜드마크로서 특징이 있는지 여부

- 건축연도 및 희소성 : 오래되었거나 희소가치가 높은 건물인지 여부
 - 진위 여부 : 건물이나 구조물의 주요 요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市의회가 시민이 제안한 건물 및 구조물 목록을 검토해 최종 확정하고 이후 市가 해당 건물·지역을 실사함.

(www.sheffield.gov.uk/sys_upl/templates/PT_Directory/PT_Directory_details.asp?esLtr=ALL&ItemId=109739&action=Display&pgid=131107&tid=154&DirectoryKeywords=&OrderDir=DESC&OrderFld=)

전기버스 시범운행 실시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환경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힘을 쏟음. 2012년에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전기버스 운행, 공용차량의 차세대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임. 市는 먼저 저탄소 배출형 전기버스 실용화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주) 등과 함께 시범운행을 2월 실시함.
- 시청 앞 광장에 급속 충전설비를 설치하고 길고 짧은 2개 순환노선을 정해 전기버스의 주행성능이나 기능성을 검사함. 현행 디젤버스에 비해 저소음 전기버스가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함.

(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094631.html)

산 업 · 경 제

2.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4년 수립한 ‘1차 관광 발전전략 2004~2010’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2차 전략 ‘투어리즘 콘셉트 베를린 2011+’를 최근 발표함. 1차 계획기간 중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베를린 관광산업은 유럽 도시 중에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총매출액 90억 유로(약 13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자리 잡음. 이는 베를린 총수입의 약 7%에 해당함.

- 市 경제·기술·여성국은 관광산업의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해 베를린 관광협회 등과 함께 2차 전략을 수립함. 수도 베를린의 경제 요소와 이미지 요소를 강화해 관광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 전략의 목표는 ① 유럽 도시 중 선호하는 관광지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②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도시 세계 5위 안에 들기, ③ 관광을 도시경제 중심 분야로 구축하기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주요 분야별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 ① 마케팅 강화: 현행 관광시장 강화와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새로운 관광객층 개발(청소년, 동성애자 등),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홍보, 커뮤니케이션과 관광산업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 ② 문화 및 이벤트 관광 강화: 다양하고 이색적인 문화풍경 보존, 기존 문화 이벤트 강화 및 새로운 이벤트 신설, 스포츠행사 강화 등
- ③ 국제회의 개최도시 조성: 국제박람회 및 국제회의 시설 확보, 베를린 컨벤션오피스 영업활동 강화, 학문과 기술 분야 회의 개최

도시로서 위상 확보, 미래지향적인 테마 강화, ‘그린미팅 도시’ 구축 등

- ④ 관광 기초시설 확보: 신공항 건설, 유럽 및 다른 대륙에 있는 도시와 항공망 연결, 유럽 내에서 높은 방문율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 내 교통 연결, 환경 친화적이고 접근성 높은 이동서비스 구축 등
- ⑤ 질 확보: 깨끗하고 친절하고 국제감각 있는 도시서비스 강화, 방문객 친화적인 도로 정보체계 확립(새로운 자전거도로 지도 등)
- ⑥ 협력 촉진과 네트워크 구축: 관광정책 기관 간 협업 강화, 도시 내부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등

(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wirtschaft/tourismuskonzept2011.pdf)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125.1240.328234.html)

3. ‘창조적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도쿄)

- 도쿄都는 ‘10년 후 도쿄’ 비전계획 목표 중 하나인 환경·건강산업, 애니메이션·콘텐츠산업, 항공기·로봇산업 등 창조적 도시형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집적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창조적 도시형 산업 집적·창출 조성사업’을 실시함. 이 사업은 都가 창조적 도시형 산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각 하위 지자체(구시정촌)가 지역 특성을 살린 대책(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 都가 이를 승인함. 다음에는 해당 구시정촌(區市町村)이 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都가 이를 검토한 뒤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보조규모는 사업비의 50%선임. 장기 사업의 경우 보조한도액이 5000만 엔(약 6억 700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1억 5000만 엔(약 20억 원)까지 가능함. 단기 사업은 4000만 엔(약 5억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함. 이 보조금은 계획을 승인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됨. 지금까지 8개 區·市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중 아래 5개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2011년 2월 都가 승인함.

- 아다치區: ‘아다치 산학관(産學官) 제휴센터’에 의한 산업창출거점 정비계획(장기)
- 가츠시카區: 산학관 연계에 의한 ‘가츠시카쵸 공장’ 활성화계획(장기)
- 시나가와區: 오사키 산업 지원 프로젝트(장기)
- 북구(北區): 연구개발형 기업 집적 활성화 계획(단기)
- 미나토區: ‘디자인 미나토區’ 프로젝트(장기)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201237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DATA/20123701.pdf)

건 강 · 복 지

4. 모든 장애학생이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통합교육 정책 발표 (베를린)

○ 베를린에서는 이르면 2012년 가을 최소한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통합학교’로 전환됨. 베를린시는 유엔의 장애인 인권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의결함.

- 장애 및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교는 베를린을 비롯해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장애아나 학습능력이 낮은 어린이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이는 장애아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임.
 - 특수학교 졸업장은 장애인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비장애인과 공동생활 부족은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 장애아 특수교육은 비장애학생이 어려서부터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함.
 - 학교는 학습 장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습득하는 곳이기도 함. 통합학교는 장애 및 비장애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배우고 어울리도록 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장이 됨.
- 베를린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만 9624명 중 42.5%인 8332명만이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은 대부분 학습, 언어, 행동발달 장애가 있음. 이러한 장애학생은 큰 무리 없이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음. 市가 발표한 통합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러한 장애학생을 모두 일반학교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이러한 종류의 장애보다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학생도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학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 첫 번째 단계로 각 자치구는 초등학교 1개 이상과 중·고교 1개를 장애인 수업시설과 교원을 갖춘 통합학교로 전환함. 이와 함께 특수학교를 가야만 할지 통합학교를 가도 될지 장애상태를 진단해주는 중앙 진단센터가 설립되고 자치구마다 장애아 교육 상담소가 설치됨. 市는 통합학교로의 전환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4년으로 예상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125.1220.328228.html)

에너지절약 방안 홍보를 위해 ‘가정 에코 어드바이저’ 운영 (도쿄)

－ 도쿄都는 2011년 2월 가정 에너지절약 진단원 또는 에너지절약 보급 지도원에 등록해 지난 5년간 일정 이상의 강의 및 교육활동 실적이 있거나 기업과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 에코 어드바이저’를 공개 모집함. 이들은 都 지구온난화 방지 추진센터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음.

- 이번에 선정되는 어드바이저는 2012년 3월까지 15회 정도 개최될 에코 세미나에 강사로 파견됨. 이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됨. 추진센터에서는 가정 부문에서의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절약 세미나, 이벤트, 사원 연수 등에 이들을 파견해 에너지절약 방안을 홍보함.

(www.tokyo-co2down.jp)

5. 민관 합동으로 ‘음식 나누기 사업’ 추진 (영국 웨일즈)

- 중앙·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간 협력으로 영국 내 음식 나누기 사업이 런던 등 대도시뿐 아니라 북웨일즈 소도시까지 확산됨.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노숙자 등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면 민간단체와 정부 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공평하게 나누기 센터’(FareShare)는 음식을 조리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 이 센터는 음식물이나 식자재를 모으고 조리·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재활용 확대, 자원 낭비 예방 등의 효과를 내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음.
- 2010년 1월 소도시인 북웨일즈의 콘위, 덴비셔 지역에서도 문을 연 음식 나누기 센터는 영국에서 총 14개 분점이 활동 중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 등으로부터 유통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과잉 공급되었거나 포장지 불량 등으로 처분해야 하는 식재료 3만 6743파운드(약 6600만 원)어치를 기부 받음. 센터는 무료로 식재료를 확보하고, 기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고, 정부는 복지 확대 및 경제 촉진, 예산 절감, 환경서비스 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얻음.
- 센터는 대형 슈퍼마켓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식 축제’를 활용하거나 빵집 등 포장지 훼손으로 판매가 어려운 식품이 꾸준히 나오는데 매장을 발굴해 기부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기부 가능 품목은 보건상 먹는 데 문제가 없는 포장된 육류, 어류와 야채, 곡물류, 주스 등 음료임. 식재료 선별과 조리뿐 아니라 식재료 수송도 중요한 역할임. 냉장차 수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연관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효과도 있음.
- 북웨일즈 센터는 크레스트 조합회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을 위해 복권 기금 등 다양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받음. 센

터에서 조리한 음식은 콘위, 덴비셔의 17개 지역단체가 관리하는 빈곤층과 노숙자 쉼터, 마약·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제공됨. 센터는 소수의 유급 직원과 다양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됨. 장기 실업자나 경력이 없어 취직이 어려운 시민이 자원봉사로 운전, 행정업무, 자재 관리 등을 경험하는 체험교육의 장이 되기도 함.

- 런던시의 경우 기업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행사가 많이 열리는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민간단체와 협력해 자재 보관 창고를 운영함. 런던 폐기물 재활용위원회는 음식 나누기 사업에 36만 2000파운드(약 6억 5000만 원)를 지원함. 2010년 한 해 동안 영국 전역에 있는 음식 나누기 센터 14곳에서 총 670만 끼의 식사를 제공함.

(news.bbc.co.uk/local/northwestwales/hi/people_and_places/newsid_9367000/9367179.stm)

(www.crestcooperative.co.uk/fareshare.html)

(www.fareshare.org.uk/news.php?id=481)

(www.fareshare.org.uk/news.php?id=476)

행 정 · 재 정

6. ‘시민 정의 패널’ 확대 구성 (영국 셰필드市)

○ 영국 셰필드市는 2009년부터 운영해온 ‘시민 정의 패널’을 최근 55명으로 확대 구성함.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롭게 선발된 18명은 ‘시민 협력자’로 교육 받고 패널 상호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됨.

- 시민 정의 패널은 피해자와 가해자(범법자)를 면담하고 쌍방 간에 일어난 반사회적 행위, 범죄 행위, 중범죄를 제외한 갈등사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시민 협력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범법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화과정을 명령할 수 있음. 시민 정의 패널로서 각종 범법행위나 갈등사안을 중재해 이웃 간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툼을 해소함.

· 셰필드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재범률이 상당히 감소됨. 패널활동이 시작된 2009년 이후 83명의 청소년이 범법자(가해자)였는데 패널 중재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명에 불과함. 영국 시민 정의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 활동으로 범죄 가담자가 감소하고 반사회적 행위 및 범죄 예방책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ww.sheffield.gov.uk/sys_upl/templates/PT_Directory/PT_Directory_details.asp?esLtr=ALL&ItemId=109728&action=Display&pgid=131107&tid=154&DirectoryKeywords=&OrderDir=DESC&OrderFld=)

7.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내진화 촉진대책 수립 (도쿄)

○ 2011년 2월 도쿄都는 1월 21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내진화(耐震化) 대책과 관련해 긴급수송 도로변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대책을 발표함. 都는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도(首都) 도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활동과 재건을 위한 핵심 인프라기능을 수행할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내진화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이번 대책의 3가지 기본 원칙은 ① 내진화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진 진단을 도로변 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②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소유주는 내진 관련 개·보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며, ③ 소유주는 내진 진단과 개·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임.

· 이번 조치는 ① 이전의 내진기준으로 건축된 건물, ② 높이가 대략 도로폭원의 1/2을 초과하는 건물, ③ 주요 긴급수송로에 접한 건물이라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함.

· 향후 都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책을 조례로 제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DATA/20121201.pdf)

도 시 환 경

8. 건설과 교통을 결합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도입 (독일)



<베를린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출처: Werner Sobek) >

- 독일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2011년 10월부터 건설과 교통을 결합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모델을 시도할 계획임. 집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고효율 배터리에 저장되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사람도 살 수 있는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가 처음으로 베를린에 도입됨.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확충과 함께 널리 보급될 전망이다.
- 이 프로젝트는 130㎡ 규모의 주택을 만들어 건설과 자동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됨. ‘내 집, 내 주유소’라는 제목으로 2년 동안 시험할 예정이며 건설과 교통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방향을 제시함. 잉여 생산된 전력은 전기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에

사용됨. 다수의 독일 자동차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협력할 의사를 보임.

-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건물과 교통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힘.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2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함.
- 연방 정부는 베를린에 시범주택을 만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한 뒤 2012년 4인 가족이 1년 동안 살도록 할 방침임. 시범사업 성과는 이와 같은 건물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고 기술시스템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함. 또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기자동차 시장 선도국가로 도약할 계획임.
-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는 에너지 절약 외에도 ① 설비의 재활용과 복원이 쉽고, ②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③ 자동화로 관리와 운용, 수리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음.
- 2010년 말에 개최된 학술공모전에서 당선된 안을 토대로 시범주택을 지으며 연구프로젝트는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와 공동 진행함. 연방 건설공간정비청이 건설을 담당하며 2011년 말경 완공한 뒤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시험기간을 거치고 2012년 초에 사람이 1년간 살게 됨.

(www.bmvbs.de/SharedDocs/DE/Artikel/B/neues-energie-plus-haus-berlin.html)

9. 영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 발전소’ 건설 (런던)

○ 런던市는 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청정에너지로 변환해 1만 5000가구에 공급하는 저이산화탄소 쓰레기 발전소(Waste Plant) 건설에 착수함. 8000만 파운드(약 14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발전소는 영국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쓰레기 발전소는 런던 외곽 대거넘에 건설되며 2013년 운영에 들어가면 10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매년 19MW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됨.

- 런던 쓰레기 재활용위원회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게 될 ‘바이오센스 이스트런던’에 890만 파운드(약 160억 원)를 대출해 줌. 이전 포드 자동차회사 부지 일부를 매입해 건설하며 발전소에서 만든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National Grid)에 되팔게 됨.

· 쓰레기 발전소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매립하면 오염을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재활용함. 또한 녹색 에너지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를 보여줌.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며 800m 이내에 있는 쓰레기를 이용함으로써 쓰레기 이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최대한 줄임.

- 동시에 런던 쓰레기 재활용위원회는 런던 전역에 3050만 파운드(약 549억 원)를 투자해 쓰레기 관리 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함. 목재가구, 잉여음식, 건설폐기물,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이 이에 속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turning-rubbish-energy-mayor-kicks-work-uks-biggest-low-carbon-waste-pl)

10.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초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힘쓸 계획임. 2008년에 발표된 ‘시카고 기후환경변화 대응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빌딩의 50% 이상이 스마트 그리드 시설을 갖출 예정임. 시카고 빌딩연합회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전력량을 약 200MW 절약할 것으로 예상함.

-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구성요소로는 ① 태양전지판, ② 풍력발전, ③ 스마트 가전, ④ 무선작동시스템, ⑤ 하이브리드 카, ⑥ 지역발전, ⑦ 양방향 무선정보시스템, ⑧ 모니터링 시스템, ⑨ 에너지 저장소가 있음.

(www.archpaper.com/e-board_rev.asp?News_ID=5083)

지역 주민이 우수 택시기사 선정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시민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택시기사를 추천하도록 해 2명의 최우수 기사를 최종 선정하고 20만 달러(약 2억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함. 2001년부터 시행된 우수 기사 선정은 택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 서비스를 제공한 기사가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초기에는 장애인용 택시를 중심으로 상을 수여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모든 택시로 범위를 확대함.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bacp/provdrs/vehic/news/2011/feb/chicagoans_to_nominatefavoritecabbieforachancetowinamedallion.html)

11. 자전거 임대프로그램 확대 시행 (런던)

○ 런던시는 자전거 임대프로그램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최근 발표함. 시는 푸른색 자전거를 도심 곳곳에 비치한 지 6개월 만에 1000만km를 사용하고 자전거로 250만 회의 통근이 있었다고 발표함. 시는 자전거 임대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2년 대상지역을 런던 동부로 확장할 계획임.

- 시 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도심을 벗어나 타워 햄릿, 북부 쇼디치, 해크니, 베스날 그린, 카나리 워프, 마일 엔드, 포플러 지역에 이르기까지 자전거 보관소가 확대 설치되어 운영됨.

· 자전거 임대 확대계획에 따라 2000대 이상의 자전거와 4200개의 자전거 보관소가 새로 설치됨. 계획이 완료되면 14만 4000개 보관소에 있는 8000대의 자전거로 65만^m에 이르는 지역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음. 통근시간에는 2만 7500회의 자전거 통근이 발생하는데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12만4800km에 해당함.

- 자전거 임대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은 11만 명이며 이 중 2만 8000명은 정기 이용권을 구입해 사용함. 시는 자전거 이용 증가만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도심으로의 통근방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힘. 자전거 이용의 95%는 30분 미만이라 요금을 내지 않음. 4파운드(약 7200원)를 내면 회원 열쇠를 가질 수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oon-and-back)

도시 계획 · 주택

12. 저소득 ·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뉴욕)

○ 뉴욕시는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저소득 · 중산층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함. 시는 5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Hunter's Point South를 퀸스區에 조성하고 4만 4500㎡에 달하는 수변공간과 9000㎡ 규모의 지하 상업공간, 4300㎡ 규모의 커뮤니티 공공공간도 건설할 예정임. 최소 75%의 주택이 영구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거공간으로 조성됨. 첫 번째 건물은 2014년 완공되며 수변공원과 초 · 중 · 고교, 주차장, 상업시설도 함께 만들어짐.

- 복합단지 디자인은 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② 회랑 (Corridor)을 구성하며, ③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적인 도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둠. 시는 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② 수변공간을 양질의 주택단지와 연계해 개발하며, ③ 공원과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시 주택보전 · 개발국과 시 주택개발공사, 퀸스區, 민간개발 부문이 설계에서 준공까지 함께 함. 이 단지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단지가 아니라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근린 주거단지로 조성됨. 뉴욕에서도 눈에 띄는 주거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 뉴욕에서는 이미 5개 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착수해 16만 5000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특히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단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됨.



- 市는 가구당 연소득이 3500만~4000만 원에서 1억 4000만~1억 5000만 원까지의 저소득·중산층 가정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득수준별 비율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계획할 예정임. 공원 부지는 2011년 여름 착공에 들어가 2년 후 완공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은 2013년 먼저 준공됨.
-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주거단지 개발로 4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함. 도시경제 측면에서는 날로 치솟는 임대료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www.nycedc.com/ProjectsOpportunities/CurrentProjects/Queens/Hunter)

sPointSouth/Documents/Hunters-Point-South-Landuse-Committee-Nov-19-09.pdf)

(www.nycedc.com/ProjectsOpportunities/CurrentProjects/Queens/HuntersPointSouth/Pages/HuntersPointSouth.aspx)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교육용으로 제공 (영국 센트럴 베드퍼드셔市)

- 영국 센트럴 베드퍼드셔市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함. 민간단체, 지역 대학 영화과 학생 등과 함께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 3명의 사례를 소개함.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밖으로 나올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무료 24시간 신고전화번호 등) 등을 상세하게 소개함.
- 고립과 폭력이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은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됨. 市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DVD로 제작해 여성 쉼터와 유관 기관에 교재로 제공함.

(news.bbc.co.uk/local/threecounties/hi/people_and_places/newsid_9387000/9387617.stm)

13. 대형 건물 밀집지역의 우수 경관 조성지침 수립 (도쿄)

○ 도쿄都는 대형 건물 밀집지역의 개성 있는 경관을 유도하고자 ‘경관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함. 도시재생 특별지구 및 도시개발 제도가 적용되는 건축물(대형 건물 등)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都는 경관조례에서 규정한 ‘대규모 건물 등 경관형성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업자와 협의해 양호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건축계획을 유도함.

- 하지만 이 지침은 별도 건축계획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이 여러 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이 어려움.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종합적으로 형성되도록 ‘특정지역 경관형성 지침(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 이 지침은 대규모 건물이 복수로 계획되는 구역에서 건축사업자가 현지 지자체와 협의해 수립하며, 사업자 전원 합의와 현지 의견 반영을 전제로 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2/DATA/22I21100.pdf)

2011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1. 뉴욕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2. 런던 / 보리스 존슨 시장
 3. 파리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4. 도쿄 /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5. 베를린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

1. 뉴욕 /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 뉴욕은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도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① 도시정부를 현대화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②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쓸 계획임. 특히 도시의 미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주요 어젠다는 아래와 같음.

- 경제 회복 및 균형 예산을 추진함.
 - 2010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잡힌 예산 책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 결과 지난 1년간 약 5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 지난 3년간 예산을 긴축하면서도 부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격차를 줄임. 2011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방침임.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
 - 차세대 산업부문에서의 창업 견인: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정부 차원에서 창업 인큐베이터를 늘림. 이를 위해 산학 협력으로 교육, 바이오, 의료산업을 유치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확충해 시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함.
- 도시정부를 현대화함.
 - 공공서비스 분야를 현대화하고 산업분야를 개선하는 사업(Simpli CITY)을 지속함.
 - 예산 긴축: 전자정부 구축, 공공부지 관리 등으로 2014년까지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도시정부 예산을 절약함.

- 공공서비스 증진: 택시를 비롯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레스토랑 주간행사 개최, 도로 경관 개선, 위생 증진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듦.
-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관리 제고: 연금시스템을 개선해 예산문제를 극복함.
- 범죄와의 전쟁, 기회 확대를 추진함.
 - 치안 확보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2001년 대비 35%가량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성과를 거둠. 2011년에는 경찰과 협력해 맨해튼뿐 아니라 4개 區의 치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 할렘가 등을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늘려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듦.

(www.nyc.gov/html/om/pdf/2011/stateofcity_factsheet_2011.pdf)

2. 런던 / 보리스 존슨 시장

- 2010년은 큰 전환점이 된 해였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전거 대여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도심철도인 크로스레일(Cross rail) 예산을 확보해 노선 확대와 시설 개·보수를 추진함. 버스는 세계 정상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도 나아지고 있음. 거리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공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런던이 좀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도시가 됨.
- 2011년에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힘씀. 왕실

의 결혼식이 있고, 50년 만에 열리는 2012년 올림픽을 최종 점검하는 해임. 하반기에는 굴절버스 운행이 종료되고 더 깨끗하고 가볍고 고품스러운 루트마스터 2층 버스가 시내를 달리게 됨. 이처럼 2011년은 활기찬 한 해가 될 전망이다.

(www.youtube.com/MayorsOfficeLondon)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heres-welcoming-2011-says-mayor)

3. 파리 /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

- 파리는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도시임. 2011년에는 주택공급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공공서비스 개선, 상수도요금 인하 등에 역점을 두으로써 도시의 역동성을 제고함.
- 지난 15년간 17만 명의 시민이 파리를 떠났지만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8만 6000명이 늘었음. 이 중 18~39세 청년층이 파리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해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 특허의 1/3이 파리에서 출원되고 총면적 105km² 규모의 도시가 국가 재정의 10%를 담당하는 등 국가의 창의력과 부가 집중된 곳임. 여기에 국제도시로서 매력을 발산해 젊은 연구자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로 만듦.
- 파리를 더욱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1년에 역점을 두는 세부 분야는 아래와 같음.
 - 복지 확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초수입이 부족한 가정에 지급하

는 생활보조금을 10% 늘림. 특히 27%에 달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① 주거 지원, ② 등하굣길 부모 대행 서비스, ③ 학비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월세가 폭등해 10년 사이 2배가 올랐고 m^2 당 가격은 5년 전보다 36% 오름. 이 상황에서 우선 사회주거를 늘려 매년 6000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택문제 해결에 힘 쓸 계획임. 특히 2011년에는 주택보조금이 은퇴자와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제공되며 1만 4000여 세대가 혜택을 받는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정책도 계속 시행함. 이 경우 50% 정도의 대출금 증가가 예상됨. 市가 주택정책 재정의 4/5를 담당하고 나머지 1/5만 국가 재정에서 담당함에 따라 약 4억 5000만 유로(약 6800억 원) 중 1억 2000만 유로(약 1800억 원)는 국가가 지원함. 첫 임대 시 또는 세입자가 바뀔 경우 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함.
- 공공서비스 개선: ① 1월부터 학교 급식비를 낮추고, ② 50여 개 취약 중학교에 100만 유로(약 15억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③ 상수도 개선공사를 실시해 사용요금을 낮춤. 2010년 1월 현재 상수도요금은 m^3 당 2.93유로(약 4400원)로 파리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면 약 40% 낮은 수준임.
- 문화정책 강화: ① ‘쌍 카트르 104’ 복합 문화센터를 활성화하고, ② 괴테 리릭 디지털 문화극장 개관을 계기로 약 1만 9000명이 즐길 수 있는 음악단지를 구상하며, ③ 센강변 공원화 또는 도로 정비계획 시행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에 일조함.
- 도시환경 개선: 도시전차(Tramway) 노선구간을 확장하고 자동차 대여프로그램도 시행함.

- 도시치안 확보: 파리 경시청 주도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센터를 설치함.
-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인권과 인류애가 넘치는 따뜻한 도시'란 이미지를 부각해 도시의 가치를 높임. 이를 위해 ① 세계 각국의 정치인 망명을 돕고, ② 종교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이슬람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이슬람문화를 인정하는 등 글로벌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힘쓰며, ③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도록 육아, 어린이 보호정책을 강화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94939&portlet_id=24329)

4. 도쿄 /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

-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도쿄가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한 주요 시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0년 10월 재확장 공사를 완료한 하네다 공항(도쿄 국제공항)을 활용해 인적 및 물적, 정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쿄 및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쿄를 좀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듦.
- 맑은 공기와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Cap and Trade' 제도를 도입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투자를 촉진하고 가로수를 2배로 늘림.

-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도쿄 마라톤 대회’를 적극 지원해 스포츠 진흥에 힘씀.
- 주민의 시급한 문제에 적극 대처함. ① 열정적인 젊은이가 사회에 진출하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②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지진에 대해서도 충실히 대비하며, ③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도쿄都의 미래상을 그린 ‘10년 후 도쿄’ 계획을 나침반으로 삼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일본 전체의 재생에도 기여함.

(www.koho.metro.tokyo.jp/koho/2011/01/aisatsu.htm)

5. 베를린 /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

- 베를린市는 그동안 재정 및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신감과 토대를 충실히 갖추. 2010년에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창업 및 기업의 베를린 이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 관광객 숙박횟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됨.
- 이러한 관광 붐은 베를린의 문화와 역사 경관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분위기,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임.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독특한 다문화적 특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창의성, 개방성, 외

지인에 대한 친절한 분위기가 나옴.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사회 통합을 증대하는 것이 베를린의 주요 미래 과제 중 하나임. 이를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사회적 결속을 더 확고히 하는 공적 투자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가난한 사람도 쉽게 거주하도록 월세의 안정화를 모색함(독일에서는 월세 임대방식이 지배적인 형태임).
 -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호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이 소외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적 토대를 만듦.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함.
- 경제발전도 주요 미래과제 중 하나임.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강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임.
- 市는 2010년을 ‘과학의 해’로 선포하고 대학 부설 및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거대한 연구 잠재력을 미래 혁신산업과 연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2011년에도 계속됨.
 - 베를린은 독일에서 환경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로 환경기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창출된 상황임. 2011년에도 이 분야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힘쓸 계획임.
 - 신공항인 ‘빌리 브란트’ 국제공항이 2012년 완공되면 베를린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지게 됨. 2011년에는 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함.

- 市가 향후 10년간 추구해 나갈 정책방향은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유용한 경제기반과 강력한 사회 통합·결속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음. 이러한 토대를 갖춘 도시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모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사회적 토대는 도시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기 힘들. 따라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1230.0925.324745.html)